

(2016/2) 사(口) : 시대와 정신

# 기말 보고서

## - 지배와 심리적 원동력



문화콘텐츠학과

2016\*\*\*\*\*

정유미

# 목차

1. 서론

2. 본론 : 지배와 심리적 원동력

2.1. 종교와 심리적 원동력

2.2. 문자와 심리적 원동력

2.3. 인간의 욕망과 심리적 원동력

3. 결론

# 1. 서론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쩌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총균쇠』는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으로 현대 인류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책이다. 즉, 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유럽 및 아시아 민족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책의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불평등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다. 각 민족, 국가, 문명 간의 우열의 차이는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을 주장한다. 환경의 차이는 식물화와 작물화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또 식물화와 작물화의 차이는 무기와 병균, 금속의 유무를 나누었고 총, 균, 쇠의 유무는 지배와 피지배를 나누었다. 이러한 유럽인들이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민족적 우월성 때문이 아닌 우연히 유리한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백인 우월주의에 제동을 걸고 유럽이 아프리카에 비해 부유한 것은 우연에 의한 차이임을 강조한다.

환경 그리고 총, 균, 쇠가 지금의 불평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많은 사례들이 증명해 왔듯이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거시적인 관점으로만 보며 모든 불평등의 요인을 환경과 총, 균, 쇠라는 틀에 맞추어 풀이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이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한다. 과연 무엇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도록 했을까? 왜 유럽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로 여겼을까? 필자는 이 의문들에 답을 이번 레포트를 통해 내보려 한다.

이 레포트의 큰 제목은 ‘지배와 심리적 원동력’으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배하도록 한 심리적 원동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심리적 원동력’이란 침략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힘을 말한다. 크게 ‘종교와 심리적 원동력’, ‘문자와 심리적 원동력’, ‘인간의 욕망과 심리적 원동력’으로 나누어 종교, 문자, 인간의 욕망이 왜 심리적 원동력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2. 본론 : 지배와 심리적 원동력

### 2.1. 종교와 심리적 원동력

<sup>1</sup>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의 탐험 동기는 물질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혼합이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 선교의 목적이었다. 비록 아메리카를 인도라 착각했지만 그 결과 미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신대륙은 지배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스페인 정복자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침략해 스페인군과 잉카 제국군이 무력 충돌하기 전, 스페인군 측의 발베르데 신부가 라틴어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개종할 것을 설득한 사례를 통해 스페인 침략자인 피사로 또한 선교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은 받은 자들로 여겼다. 유럽인들에게 원주민들은 선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불쌍한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선택 받았다는 우월감을 토대로 선행을 베푸는 의미로 선교를 했다. 그리고 개종을 설득하며 성경을 보여주며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자 아타우알파가 성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아타우알파의 이 행위는 성경을 이유로 피사로에게 '정당한 전쟁'의 구실, 즉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할 명분을 주었다.

<sup>2</sup>기독교의 역사 2000년은 이방에 대한 선교, 곧 타종교를 복음으로 정복한 선교의 역사이다. 1세기의 세계에서 문명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헬라의 온갖 신들을 누르고, 심지어 이름 없는 신까지도 정복해서 그곳에 복음을 심었다. 그리고 겨우 3-4세기만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교로 받아들이게 했다. 중세의 긴 역사에서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유럽 지역에 세우기 위해 이슬람교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해야 했다. 십자군 원정들이 그러했고, 이베리아반도에서 회교도들을 축출해서 아프리카로 몰아넣은 전쟁이 그러했다. 근대에서는 유럽의 열강들은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채로 인도와 중국을 위시해서 힌두교, 불교, 유교, 회교의 이른바 세계 종교들이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복음의 선교를 내세우며 침략했다. 뿐만 아니라 신대륙의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는 복음 전도라는 명목으로 참혹한 살육이 행해지기도 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이처럼 타종교 지역에 대한 선교의 역사일뿐더러 그 과정에서 복음 전도의 이름으로 만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역사이다.

위 콜럼버스와 잉카 제국 사례들과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보아 종교는 단순히 믿음의 역할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타종교를 기독교를 더 많이 멀리 퍼트리려고 했고 기독교가 아닌 지역은 참혹한 살육을 해서라도 기독교로 개종하려 했다. 유럽인들에게 하나

---

<sup>1</sup> 김상근,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선교에 대한 잉카(페루)의 반응 양식」, 『선교신학』, 32, 2013.

<sup>2</sup> 이정희, 「종교와 제국 - 제국적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19, 2004, 9~10쪽.

님을 믿지 않는 원주민들은 불쌍한 존재였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선교하려 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한 원주민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침략을 선교를 위한 것이라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결국 종교는 유럽인들이 침략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심리적 원동력인 셈이다.

## 2.2. 문자와 심리적 원동력

<sup>3</sup>여러 기록과 민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듯, 유럽인과 원주민 간의 불소통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요소는 문자였다. 당시 스페인은 신의 책, 즉 주변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읽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려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끼뿌스(잉카 제국의 기호체계)와 알파벳의 이질성만큼이나 두 문화는 세상을 대하고 파악하는 방법 자체가 달랐고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해석 역시 서로 달랐다.

종이의 생산으로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책이 대량으로 보급됨으로써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전통적 지혜 담지자로서의 노인 대신 문자 그리고 책에 대한 신뢰와 숭배가 생겨났다. 그 같은 배경에서 문자문화는 무문자문화보다, 알파벳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 문화는 그렇지 않은 문자보다 우월하다는 유럽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동시에 알파벳을 가진 언어 특히 라틴어에 대한 우월성이라는 신념 역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신이라는 실체는 라틴어를 통해서만 적절하고 참되게 지칭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스페인인들에게 있어서 문자도 책도 없으며 라틴어 혹은 그에 상응할 만한 '진정한' 언어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들이었다. 이처럼 문자와 언어면에서 유럽인이 원주민보다 진보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일방적 믿음이 소통 이면의 불소통을 야기했고 문화 차이에 의한 소통의 어긋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sup>4</sup>스페인인들은 원주민들이 스페인어를 알아듣는다고 간주하는 자기중심적 착각에 빠져 있었다. 스페인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초기에 원주민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일반적인 주장에도 소통의 문제가 관계되어 있다. 스페인인들은 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페인인들은 문화적 차이에 의한 번역상의 오류와 자신들이 신으로 비추길 원하는 바람의 투용으로 자신들이 신으로 여겨졌다 생각했다. 또한 원주민들이 백인을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나중에 발명 혹은 창조되어 의도적으로 유포된 소문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원주민의 인식이 미개하다고 평가 절하했던 스페인인들

---

<sup>3</sup> 강성식, 「아메리카 '정복'과정 속의 (불)소통과 단절」, 『이베로아메리카』, 23, 2012, 26쪽.

<sup>4</sup> 위에 책, 12쪽.

의 일방적 경향에서 비롯된 곡해의 결과이다.

유럽인들에게 문자문화가 무문자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문자도 없고 책도 없는 원주민들은 미개하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렇게 유럽인들은 정복은 원주민들을 위한 행동이라 정당화했다. 유럽인들이 신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원주민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언어가 달라 뜻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문자가 없는 원주민들에 대한 멸시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럽인들은 더 신중하게 원주민들의 뜻을 헤아리려 했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우월감으로 그들의 소통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문자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모순을 만들어낸다.

문자는 유럽인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주었고 문자가 없는 원주민들은 미개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유럽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는 소통의 단절이 생겼고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정복해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국 문자는 유럽인들에게 원주민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 심리적 원동력인 셈이고 지금의 불평등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요소이다.

### 2.3. 인간의 욕망과 심리적 원동력

인간의 인성,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확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 살펴보겠다. 물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필자 또한 인간의 욕망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욕망을 논한 대표적인 학자 <sup>5</sup>홉스에 의하면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자이며, 자기 보존을 위해서 욕망을 무한히 추구해가는 존재자이다. 홉스에게 욕망을 갖지 않는, 특히 힘 혹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는 인간이란 죽은 인간을 의미한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힘(권력)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모든 인간의 일방적 성향"인데, "이것은 오직 죽어서만 멈춘다." 이처럼 홉스가 말하는 욕망의 특징은 주어진 욕망을 끊임없이 넘어서서 나아가는 데 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힘(혹은 권력)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하다고 홉스는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없는 욕망'을 동시에 누리하고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다.

---

<sup>5</sup> 최준호, 「홉스와 루소의 인간관 심신관계에 대한 가치론적 고찰」, 『철학연구』, 98, 2006, 4-17 쪽

이처럼 자연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전쟁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른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정상적인 근로활동이나 교역활동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홉스가 보기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지속적인 공포와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또 험악하고 잔인하며 짧다”고 말하고 있다.

루소 역시 자연 상태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자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점에서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홉스와 같이 루소 또한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을 침략하고 식민화한 건 욕망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유럽인들은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이득을 보기 위함이 바로 욕망이다. 홉스는 모든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욕망은 자기 보존을 위해 존재한다. 당연히 유럽인들에게 욕망은 있고 물론 원주민들에게도 욕망은 존재한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많이 먹고 싶은 욕망, 그러면서도 더 많이 쉬고 싶은 욕망. 모든 인간이 이러한 욕망들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 인간만이 욕망을 실현할 수 있었다. 유럽인들은 ‘함께 누릴 수 없는 욕망’을 누리기 위해 다른 인간들의 것을 빼앗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럽인들과 원주민들은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다.

유럽인들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원주민의 것들을 빼앗았다. 즉,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원주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 오히려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지만 “왜 식민지를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인간의 욕망 또한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만들게 한 심리적 원동력이다.

### 3. 결론

과연 무엇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도록 했을까? 왜 유럽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로 여겼을까?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필자는 나름대로 논해보았다. 그 이유는 심리적 원동력으로 종교, 문자, 인간의 욕망으로 나누었다.

유럽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주민들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고 기독교가 아닌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함이라 침략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문자는 유럽인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주었고 문자가 없는 원주민들은 미개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유럽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엔 소통의 단절이 생겼고 유럽인들은 원주민을 정복해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은 가장 당연한 인간의 욕망으로 유럽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인간(원주민)의 것들을 빼앗으려 원주민들을 침략했다.

필자가 찾은 세가지 요인 말고도 유럽의 침략에 심리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 요인들에 대해 더 생각해야할 필요를 느낀다. 또한 현대 인류의 불평등을 오직 환경의 결과로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총, 군, 쇠라는 틀에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고 시선을 돌려 다른 요인들을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김상근,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선교에 대한 잉카(페루)의 반응 양식」, 『선교신학』, 32, 2013.

이정희, 「종교와 제국 - 제국적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19, 2004.

강성식, 「아메리카 '정복'과정 속의 (불)소통과 단절」, 『이베로아메리카』, 23, 2012.

최준호, 「홉스와 루소의 인간관 심신관계에 대한 가치론적 고찰」, 『철학연구』, 98, 2006.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김진준, 문학사상사, 2014.